

농어촌마을의 노인생활공간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Change Elderly Space in the Fishing and Agrarian Village

손 승 광*, 이 춘 미**1)

Shon Seung kwang, Lee Choon Mi

ABSTRACT

A rural area of Korea is inferior compare to urban areas in physical settlements, and an elderly people of the inhabitant increased and it is not easy to see young people in a rural villages. It comes from income difference between industrial type and area and leaving rural area are the accelerated and repeated, and resident who live in rural area after twenty to thirty years can be an elderly society

A settlement of rural area is needed settlement rehabilitation for elderly society as follows first, a model development and public support of settlement rehabilitation for rural areas. Second, village remodeling of farming village for elderly are discussed. The rehabilitate rural villages is expected an immigration from urban area which over crowding, and eco tour as new industry.

Keyword : village for elderly, rehabilitation, elderly people and community

1. 서언

한국의 농촌사회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행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면서 산업간 소득격차, 도시농어촌간의 소득격차로 인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의 인구는 1960년 이후 산업화 도시화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이농현상의 가속화, 이후 거주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마을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¹⁾

이농현상으로 인구유출, 특히 젊은이들이 주로 도시로 지속적으로 이주하였고 젊은이들이 줄어들면서 출생인구가 격감하여 농어촌 지역에 남아있는 주민들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척되었다.²⁾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는 향후 20년후에는 농어촌 거주자의 자연사망으로 인하여 농어촌 공동화가 심각해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농어촌의 문제가 가속화되어 농촌문제는 거주인구의 격감과 노령화, 생활과 거주환경의 쇠락화의 문제에 대하여 자생력을 상실하는 단계로 진단 할 수 있다.

2. 농촌의 사회변화와 거주자 생활

2.1 농촌의 정주권의 문제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대가족중심의 농경사회구조이었다.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 이후 공업화, 산업화, 도시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농촌의 인구는 공업단지와 대도시로 이주하고,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농함으로써 농촌인구는 고령화가 가속화되었다. ‘전남지역 농어촌마을에서는 마을의 과소화, 빈집이 다수 발생하였고, 빈집이 전체 농어촌주택의 2.9%로서 11,491동에 해당하며, 마을 주택의 30% 이상이 빈집인 마을이 104개로서 전체 마을의 1.6%에 이른다. 또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5.6%로서 13개군 지역은 마을의 20%를 초과하고 있다.’³⁾

이러한 현상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성장과 개인의 소득향상이 급진적이었으나,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도시지역과 1차 산업이 주류인 농어촌의 산업구조의 차이, 산업유형별 발전속도의 차이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산업간, 도농간, 선산업화지역과 후발지역간의 상대적 격차가 벌어지면서 농어촌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가속화되어 왔다.⁴⁾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구이동은, 한국 근대화과정에서 40여 년간 이러한 변화 속에서 농어촌사회의 정주권과 활력을 붕괴하게 하는 메카니즘의 근간이 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농어촌사회는 활력

3) 전라남도 행복마을 기본구상, 2007.

4) 농수산업이 차지하는 국민총생산(GDP)비중은 1970년대에 29.2%이었으나 1980년 13.8%, 1990년 7.8%, 2000년 4.2%, 2005년에 2.9%로 낮아졌고, 농가인구비중은 1970년 44.7%, 1980년 28.4%, 1990년 15.5%, 2000년 8.6%, 2005 7.1%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도시지향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는 농촌의 생활권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07년 FTA가 체결되면서, 농어촌지역의 상대적 취약성이 국제간 무역체계가 개방화가 가속되면서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 정회원, 동신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 정회원, 동신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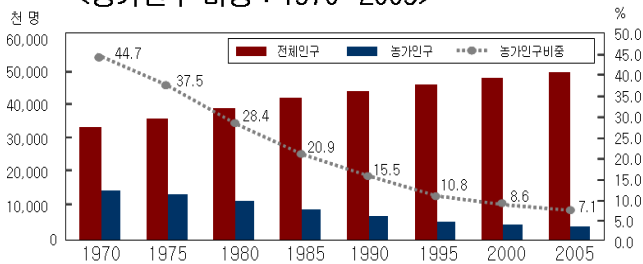
1) 전라남도 행복마을 기본구상, 2007. 농어촌지역 인구 1990년 16.7%에서 2004년에는 7.5%로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노령인구 2005년에 9.1%에서 2018년 14.3%(전남 18.6%)로 예측되고 있다.

2)

과 자생력이 저하되고 정주공간으로서 매력을 잃어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유입이 어렵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노령화, 초고령화로 치달고 있으며, 거주자의 최소연령대가 60대에 이르러 노년층의 새로운 투자유구는 더욱 위축되어 부정적인 악순환의 고리가 멈추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여 있다. 이로 인하여 마을의 공동화, 빈집 혹은 폐가의 누적화 되고, 노후불량주택이 증가하여 농어촌의 정주환경과 경관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산업간 소득격차로 인하여 농어촌을 떠났던 측면이 여전히 유효하고 가속화되는 측면에다가 현재의 생활여건 또한 기존마을의 공동화, 농촌경관의 방치, 생활기반시설의 전근대화가 방치되면서 농어촌에서의 정주권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농가인구 비중 : 1970~2005>



2.2 농어촌정비정책사업과 전략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은 가지고 지원정책을 펼쳐왔으며,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왔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과 생산기반사업, 그리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970년대에는 새마을사업으로, 1980년대에는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 1990년대에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하여왔다. 1960년대에는 절대적 빈곤과 지붕개량사업이 지원대상이었다면, 1970년대80년대에는 도농간통합을,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중심마을, 거점마을을,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녹색마을, 정보화마을, 농촌종합개발사업, 거점면개발사업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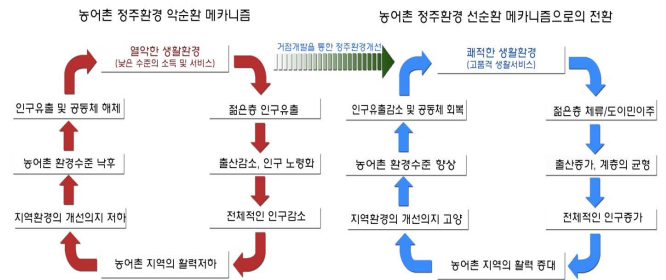
2.3 고령사회 농어촌의 악순환 메카니즘

한국의 농촌은 근대화과정을 거쳐가는 와중에 농촌과 도시의 발전속도, 생활환경, 경제활동의 여건이 너무 열악하여 탈농촌시대, 농어촌 생활권과 공동체의 붕괴, 인구생산과 유입의 단절 등의 악순환의 메카니즘을 차단하는 것은 농어촌 주민의 자력으로 하기에는 너무 과중한 부담이다.

살기좋은 마을은 궁극적으로 농촌사회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지역창조라는 비전하에 ‘쾌적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⁵⁾ 만들어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5) 성경룡(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의 비전과 과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제이플러스에드, 서울, p20

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내용으로는 고품격 생활환경, 경관과 건축문화의 질제고,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 지역특화브랜드 창출을 들 수 있다. 도시처럼 모든 생활여건이 우수한 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은 자원특성, 비용, 등이 한계가 있어서 다양한 목표 중에 몇 가지 특성을 살려서 마을을 조성하고 정비하는 방안으로 ‘산업형, 교육형, 정보형, 생태형, 전통형, 문화형, 관광형, 건강형, 가족형’등의 마을로 조성한다.



3. 노령화사회 농어촌 공간재생 변화⁶⁾

3.1 빈집

농어촌의 거주인구가 자연감소, 혹은 도시권으로 이주하면서 빈집이 많아졌다. 1년동안 거주하지 않은 농촌빈집은 12만여 호로서(2005년 통계자료기준) 매년 빈집은 정비하는 데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⁷⁾ 이러한 현상은 마을이 노령화되어 활력을 잃은 데에다 물리적으로 주택의 노후화, 공동화로 인하여 노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실정인 농어촌 마을의 거주환경은 자기집 환경정비만으로는 마을 전체적으로 거주특성을 쾌적하게 관리하는 데에 한계를 가지게 된다.

농어촌의 인구밀도가 높을때에 조성되었던 주택의 대지면적이 협소하고, 현재는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진 현재의 상황으로는 주택부지를 넓히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아지는데, 빈집은 철거 정비후에 인접한 주택에서 부지로 편입하도록 지원하여 농어촌마을을 전체적으로 쾌적하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3.2 마을회관과 공동공간

1) 주민들의 공동생활공간

농촌거주자들이 연령대가 최소연령대가 60대에 접어든 마

6) 여기에서 말하는 정비 보완형 행복마을은 단순히 도로, 상하수도, 전기, 교통시설 등의 SOC만을 정비하는 것은 아니며 농어촌주민이 안락하게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주거생활환경과 생산 및 생태환경적 공간 등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함

7) 농어촌주택개량사업촉진법에 의한 빈집정비사업이 추진중임

율이 상당수이다. 특히 이들의 소득이 빈약한 사람들이 많고, 이들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난방 등의 유지비 때문에 부분난방, 주택의 난방대신 보료 등 보조난방으로 추위에 떨면서 살아가는 노인들이 상당수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나타나는 농어촌 주민들의 월동방안은 마을공동회관에서 모여서 생활하고 저녁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나,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은 저녁시간에도 좁은 마을공동회관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마을들이 상당수 있다. 이러한 마을공동시설에서의 생활방식은 보다 새로운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경우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며, 특히 농어촌을 체험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소규모의 숙박이 가능한 실들을 건축하고, 관광객들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생활의 연장으로 마을회관 혹은 노인회관을 복합적으로 구축하는 마을시설이 주민들의 욕구에 의하여, 또는 농촌체험과 관광수입을 적극 지원하는 지방정부로부터 요구되는 프로그램이다.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은 마을의 공동생활공간으로 중요한 시설이다. 전통적으로 마을입구나 중심에는 정자가 있어서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으며,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이 건축되었다. 시골마을에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단순히 모임의 장소로서 마을회관 노인회관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마을회관, 노인회관에서 노인들의 생활방식은 자기 집에서 밥과 반찬을 들고와서 공동으로 식사를 하거나, 회관의 취사기구를 활용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취식을 하는 마을의 수와 빈도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마을의 공동회관을 개축하거나 증축하거나 하는 경우, 거의 모든 경우 취사공간을 설치하고,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간대가 늘어나면서 마을 공동비용으로 난방비를 마련하고, 난방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태양열전기 설비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마을주민들의 욕구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2) 민박공간으로서

또, 마을공동회관은 농어촌마을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하여 외부방문객들을 농어촌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변화들이 있다. 주5일제를 맞이하여 농어촌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민박이 가능하도록 농촌주택의 민박지원사업을 시도하고 있고⁸⁾, 마을회관에 숙박이 가능한 실을 증축함으로써 공동시설을 이용한 민박공간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들이 중요한 선진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서 민박이 가능한 공간을 신축 혹은 증축하는 목적은 평소에는 주민들이 주민들중에 남녀 생활공간을 구분하여 활용하기도 하고, 또, 도시지역 혹은 외부방문객들로 방문객들에게 방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수익도 가능하여 노인들이 살아가는 공동시설에 대한 난방

비 등의 유지비를 확보하는 사례도 마을이 공동공간의 운영프로그램에 의하여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생활의 변화는 농어촌지역의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변화속에서 코하우징이 외국의 문화로부터 전래되기 보다는 주민들의 구성이 노령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고 공동생활방식의 출현으로부터 공동생활공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과정으로 주목할 만하다.

4. 노인시설의 확대와 지역공동체 변화

4.1 공동시설과 공동주거단지(Co- Housing)⁹⁾

- 노령화사회의 주민들의 구성비가 높을수록 보호가 필요하다.
- 공동생활과 노약자, 핵가족 혹은 전문인으로서 업무 중에 임시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독신생활자에게는 취사, 가사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 단지내에 공동생활공간으로 생활공간, 식당, 체육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함
- 공동생활공간주변, 근접거리에 개인생활을 배치함
- 저렴한 생활유지비와 노약자의 안전도를 강화함

노년층들과 장애인들은 질병 혹은 무능력한 사람들보다 더 고립되어 사는 경우는 사회적인 관계망과 근린환경의 서비스를 상승시켜서, 예를 들면, 사회는 가사작업, 지원 체계를 통하여 주택지역내에서 거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마을공동회관, 혹은 노인회관을 이용하여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 이러한 공동시설은 적절한 농어촌 복지시설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들을 위한 복지환경은 따뜻한 공동생활공간을 운영하여 추운 겨울생활을 지내며, 노인들의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공동시설의 운영은 농어촌지역에서 자기주택을 가지면서도 공동생활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노인주거의 안전성, 편의성, 경제성을 강화시켜 주는 사회적 시설과 체계로서 미래의 노령화사회변화에 따른 수요에 적극적으로 활용가능한 공간이다

4.2 공동생활과 통학권시설

인구규모가 적은 지역의 사회간접시설은 빈약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생활의 쾌적성과 편의성에 대한 욕구는 대도시와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공

9) 아래의 미국의 코하우징은 갈색 부분에 공동생활공간이 있고, 인근에 개인생활이 가능한 공간이 배치되어있다. 주변에 세워진 주택들은 2층으로 구성되는데, 1층은 공동생활공간으로 거실과 식당 부엌이 있으며 2층에는 침실이 있다.

8)

동체성, 시설의 복합성, 다양성을 강화시켜 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양한 주민들로 구성될 수 있다.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보육시설이, 학부 모들에게는 학교가, 노인들에게는 복지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편의시설이 다양하게 필요하다. 규모가 작은 지역일 수록 필요한 욕구는 다양하되,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여 모든 시설이 민간시설로 유지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지역일수록 복합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과 사회가 형성되어야 한다. 학교를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의 근린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완전히 개방하게 함으로서 지역 사회의 커뮤니티형성, 체육을 통한 주민사회의 형성, 복지 환경의 확보 등의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체계로 운영되는 학교시설은 도·농통합형 사회에 소중한 자원이고 시설이므로 국가사업비로 특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생활권과 노인복지시설정비

5.1 자연부락과 중심마을

농어촌의 인구감소는 농어촌마을의 거주자수, 마을의 주택 수의 감소를 의미한다. 현재 자연부락의 가구수는 -----명 정도의 마을이 많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20-30호 정도의 마을들에 거주하는 노령화된 주민들이 20년 정도후에 농어촌마을의 주민들이 격감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자연부락단위로 마을을 정비하고 지원자금이 큰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사업, 마을의 정비 육성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있다. 이러한 비판이 타당한 요인이라고 인정되는 입장에서는 농어촌지역의 마을정비와 지원에 대한 대상은 자연부락이 아니라 몇 개 마을로 이루어지는 생활권역, 즉 중심마을 몇 개마을을 하나의 마을단위로 마을의 공간적 범위를 재설정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부락은 마을과 마을의 입지와 규모 등에 따라서 몇 개의 마을들이 생활권을 형성한다. 마을특성에 따라 3-4개 마을권, 많게는 10여개의 마을들이 생활권을 형성하기도 한다. '1개 면당 3~4개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당 1개의 중심마을을 선정하여 육성하도록 하거나¹⁰⁾, 권역내 마을중에서 테마 또는 브랜드가 있는 마을, 발전 잠재력이 높은

마을, 열성적인 리더가 있는 마을을 중심마을로 선정할 수 있다.' 또, 중심마을권은 다양한 방식의 중심마을이 있을 수 있는데, 중심마을은 적어도 초등학교가 있었던 마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농현상이 진행되면서 초등학교 중에 면단위의 초등학교만이 존립하고, 상대적으로 자동차교통에 의하여 이동이 용이하여 대다수의 초등학교들이 폐교가 되어졌다. 현실적으로는 초등학교권의 폐교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통학권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형성할 수도 있다. 중심마을에 대해서는 행재정 지원을 강화, 주변 마을과는 교통 접근성 제고 및 기타 연계성 증진 프로그램 제공할 수 있다. 기존 중앙부처 시범마을조성사업(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과 연계 시행

5.2 면소재지 생활권

면소재지는 기존의 면사무소, 농협, 수협, 축협, 우체국, 파출소,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가 소재한 곳으로 농어촌의 생활권의 중심이다. 농어촌주민이 줄어들고 면단위에 3-5개정도의 초등학교가 면단위를 제외하고 폐교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면단위생활권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특히, 기존에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도시이주민의 절반이상인 50~55%가 읍·면소재지의 생활편의·교육·복지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¹¹⁾ 그 만큼 중심면소재지의 기능을 설정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민의 이주까지도 염두에 두고 공간의 질이 높은 생활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면단위에 있는 면사무소, 농협, 수협, 축협, 우체국, 파출소,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는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가구 수와 인구수가 줄고, 있음에도 각각의 공공시설과 기관들이 여전이 기능분화와 시설의 독립성으로 인하여 시설비, 유지비를 확보하기 어렵고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농어촌의 주민서비스에 대한 수준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면소재지에 있는 다양한 기능의 시설들을 복합기능의 면소재지에 있는 커뮤니티센터의 통합된 서비스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의 방안은 농어촌지역에 입지하게 되는 노인복

10)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 지정 및 마을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제38조), 경제·사회·문화·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 규모의 농산어촌 거점 지역 육성(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제39조)

11)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200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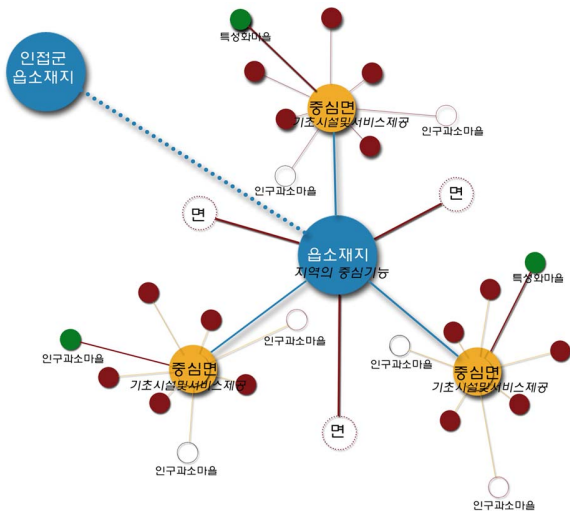


그림 4 마을, 면, 읍소재지 중심권역 생활권 개념도

지시설이 지역복지서비스 중심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

- 노인복지시설의 공동시설과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방안
- 노인복지시설 주변에 복지지원 서비스가 용이한 노인주거단지 조성
- 장성의 프란체스카 노인요양원은 복지시설이 처음에는 기피시설이었으나, 노인요양원에서 인근주민 및 장성군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중요한 시설로 정착하게 되었고, 주변의 택지분양도 용이하였고, 주변 주거단지는 농촌주거지로서 인기가 높다.

6. 맺음말

농어촌사회의 거주자들이 노령화되고 초고령화 사회로의 변화과정에 있어서 노인생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구심적 사회도 공동체공간도 노인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농어촌주민들의 공동생활을 살펴보면, 주민스스로의 기본적인 취사, 모임과 친교활동을 보면 그러한 변화과정도 나타나고 있다.

- 1) 농어촌마을의 생활공간은 노인생활공간의 종류가 다양하여지고 마을단위로 공동생활공간은 회의장소에서 생활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 2)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서의 공동취사와 공동생활의 밀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이러한 변화는 농어촌사회를 중심으로 코하우징의 자생적 출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3)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어비스는 면단위를 중심으로 위치하도록 하고, 이동차량을 활용한 방문서어비스를 하도록 함으로서 농어촌사회의 복지서어비스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주거학연구회(2006), 더불어사는 이웃 세계속의 코하우징, 교문사, 서울
 吉備高原新都市(2006), 흥보리플렛 자료, 일본
 김현호, 2006,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2005. 11),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제이플러스에드, 서울
 송미령 외(2006),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후인건축환경디자인협의회(2000.3), 유후인건축환경디자인가이드라인, 일본
 전라남도행복마을전략기획팀(2006.12), 행복마을조성 기본계획(시안), 전라남도
 행자부(2006)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홍보자료,